
2021년 제43호 방송심의보고서

2021. 10. 22. ~ 10. 28.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1. 10. 22.	시청률	0.039

【총 평】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전국 곳곳의 가볼만한 곳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전달했다. 최첨단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는 위민행정의 모델을 제시했고, 청년마을 만들어요, 경북 영덕 '뚜벅이마을'은 지역의 소멸 위기를 벗어나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들도록 특색있는 정책을 소개한 기획이 돋보였다.

'전국 곳곳 가을에 가볼만한 곳'은 전북 군산시의 경암동 철길마을, 전남 신안군 2백만 송이의 맨드라미 정원 등 지역 관광지를 소개했다. 또 독일에서 만나는 '케이팝'과 '오케스트라'는 K팝과 오징어게임 등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주목 받는 시점에 독일인들에게 우리글과 말을 널리 알리고 문화 교류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37년간 396회 헌혈, 헌혈왕 이남희 씨, 전 재산 바쳐 독립운동, 6형제의 송고한 뜻 기려 등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이웃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되새기는 의미있는 아이템이었다.

【구성 및 내용】

■ 최첨단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서울 마포구 시내버스 정류소에는 에어컨, 공기정화기를 갖췄고 공공 와이파이 사용과 스마트폰 충전도 가능하다. 스마트쉼터는 버스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편의성을 제공한다. 서울지역에는 현재 8개가 설치되어 있다.

■ 청년마을 만들어요, 경북 영덕 '뚜벅이마을'

경북 영덕 해안도로인 블루로드에 걷기를 좋아하는 청년들이 찾았다. 영덕에서 1주일을 살아보며 지역주민들과의 교류도 진행한다. 이런 프로그램을 구상한 것은 뚜벅이마을의 청년들로 지역만의 특색이 담긴 프로그램, 창업활동을 하고 있다.

■ 37년간 396회 헌혈, 헌혈왕 이남희 씨

60이 넘은 나이에 이남희 씨는 헌혈의 집을 찾았다. 20대 초반부터 시작한 헌혈은 37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한 달에 2번씩 396번째 헌혈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혈액 보유량이 적정 기준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 복고문화 유행 속 '철길마을' 추억 체험 인기

1967년 사라진 증기기관차가 다녔던 군산의 한 철길마을은 현재 관광지로 탈바꿈했다. 좁은 골목사이로 기차가 다녔던 마을공간은 1.1km의 철길 관광지화를 통해 옛 모습을 간직한 가게들이 들어섰고 교복을 입는 체험도 진행하고 있다.

■ 전 재산 바쳐 독립운동, 6형제의 송고한 뜻 기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던 이석영 선생과 6형제들을 기리는 광장이 지난 3월 조성되었다. 압록강을 상징하는 바닥분수부터 역사체험관, 전시관이 마련되었고 친일파의 관련 기록, 신흥무관학교 자료들도 전시되었다.

프로그램	산이 좋아 물이 좋아		
방송일자	2021. 10. 22.	시청률	0.012

【총 평】

‘철새마을 노부부의 가을맞이 - 강원도 철원’편은 민통선 북쪽마을 철원의 철새 도래지에서 반세기 동안 철새 사진을 찍는 남편과 현역 시인으로서 향토 문인활동을 펼치는 70대 멋쟁이 노부부의 여유로운 삶의 지혜를 전달했다.

“인생 황혼기에 하나씩 놓아가야만 한다. 이제는 무료하지 않은 시간이 돼서 다행이야” 등 노부부가 일상적으로 던지는 말속에 인생의 지혜가 묻어나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 50년 간 촬영한 철새 사진을 선별한 ‘철새 사진집’을 통해 철새마을에 사는 노부부의 집념과 멋을 느낄 수 있었다. 쉽게 가까이 할 수 없는 민통선 철새마을에서 보여지는 철새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영상에 담아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최북단에서 자유롭게 오가는 철새가 부럽다”며 분단의 아픔을 제기하고 “자유 왕래와 통일을 기원”하는 진행자의 마무리가 메시지 전달력과 공감도를 높였다.

【구성 및 내용】

‘철새마을 노부부의 가을맞이’편은 철새 마을이라고 불리는 강원도 철원의 양지리에서 철새를 사랑하는 노부부의 이야기를 전했다. 철원은 자연 생태계가 여전히 살아있어 겨울 철새들이 찾는 중요한 거점이다. 두루미, 기러기 등 철새가 좋아 사진을 찍고 있다는 부부는 그동안 찍은 사진을 담아 출간한 사진집도 출간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 사진을 찍어주다 보니 촬영장비도 구입하고 지난 50여 년간 두루미 등 철새사진을 촬영하게 되었다. 해마다 찾아오는 철새들은 수십 년간 보아오던 장면이지만 매년 새롭게 느껴진다. 남편은 남방한계선에서 양봉을 하고 있다. 벌들의 상태를 살피며 산란이 잘되었는지 여왕벌이 잘 살아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생업에 전념하고 있다. 해마다 찾아오는 철새들을 카메라에 담기위해 가을걷이 농사를 서두르고 있다.

아내는 철원 문인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시인이다. 오후에 있을 시낭송회를 위해 남편에게 미리 낭송할 시를 들려준다. 아내는 2012년 등단해 2014년 첫 시집을 발간했다. 시란 가족사를 되찾는 것이라고 말하며 빛바랜 사진들을 보며 자작시를 낭송한다. 어릴 적부터 글쓰기를 좋아했던 아내는 시를 다시 쓰기 시작하면서 삶이 더 즐거워졌다. 시낭송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규모가 줄었지만 참가자들의 열기는 대단하다. 아내는 옛날 생각이 자주 떠올라 관련된 시를 많이 쓰고 있다.

노부부는 이른 새벽 철새를 찍기 위해 장비를 챙겨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근처 학저수지로 향한다. 학저수지에서 자리를 잡고 새를 촬영하려고 하지만 새가 없어 다른 장소로 옮긴다. 차를 몰고 가다 새들이 모여 있는 곳을 발견하고 사진을 촬영한다. 하늘을 뒤덮은 기러기떼의 경이로움과 철새들의 낙원인 철원군이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곳이어서 통일을 기원하며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1. 10. 23.	시청률	0.013

【총 평】

‘우리는 오지 마을에서 스타트업 한다.’편은 경북의 오지마을 BYC(봉화, 영양, 청송)의 봉하마을 청년들이 뜻을 모아 스타트업 회사를 차려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담았다. 특히 인턴 학생들도 포용하고, 닭도 키워 달걀도 팔고, 농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를 만들며, 대안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봉하마을에서 자란 청년들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비즈니스는 마을의 농작물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판매하는 것이다. 상품을 수확한 농가나 받을 방문에 직접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농부는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아 수익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오지에서도 IT 창업이 가능하다는 것과 독립 대안학교 운영 그리고 정원 디자인 새싹 기업으로 성장한 배경 등 새로운 시각으로 기존의 틀을 바꾸고 있는 청년들의 멋진 도전을 담았는데, 모든 것의 출발이 내일 학교(독립대안학교)라는 점에서 특별하게 다가왔다.

【구성 및 내용】

오지에 터를 잡은 청년들 그리고 도전 가능한 힘의 원천인 대안학교와 자연 속에서 창의력을 키우고 새롭게 도전하는 개개인의 이야기 등은 정형화된 일상에서 벗어난 모습이어서 새롭고 흥미 있었다. 봉화 ‘내일학교’라는 대안학교를 다니며 비슷한 성향, 비슷한 이상향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끼리 뜻을 모아 자신이 오랫동안 터를 가꾼 봉화에서 최첨단의 IT 사업을 시작했다. IT스타트업은 서울 강남이나 판교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이유는 자신들의 상품이 대부분 농산품이므로 봉화 마을에서 시작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고, 생산자들과 친근감도 쌓을 수 있으며, 도시에 있으면서 소비자들의 요구를 피상적으로 파악하는 것보다 차별성을 가질 수 있어서이다.

봉화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이들은 농사와 익숙하다. 닭을 키우며 계란을 팔아 학교 운영에 보태고, 학교 부지를 가꾸며 정원수를 재배하여 판매도 한다. 카약을 타면서 휴식 겸 몸을 단련하고 개울 청소도 하고 왁자지껄한 바비큐 파티도 하고 있다. 특히 직장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성을 가진 곳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함께 보완해가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이 제시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찾고, 정말 자신이 행복함을 느끼고 진정으로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라는 인턴 직원의 이야기가 핵심이었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귀한 시간과 돈을 들여야만 즐길 수 있는 자연을 만끽하고, 그 자연을 통해서 무궁한 상상력을 얻으며 자신의 일상을 가꿔나가는 청년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통해 우리가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모든 핑계를 뒤로 하고 우리 함께 스타트업! 업!’이라는 문구로 마무리했는데, 구호식 문구가 주제와 잘 맞아떨어졌고, 불끈 쥔 주먹 그림이 메시지 전달 효과가 있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1. 10. 24.	시청률	0.013

【총 평】

‘친북’에서는 북한의 경제난이 가중되고 주민들의 탈북이 증가하는 가운데 연이어 미사일 도발을 시도하는 속내를 분석하고 가장 큰 피해자인 북한 주민을 위해서라도 한반도 평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경비대장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탈출한 북한 일가족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1호 방침을 소개하며 북한의 경제난 속에 주민들의 일탈 사례를 제시한 점이 집중도를 높였다. 북한이 판은 깨지 않으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한미 양국이 북한과 대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해결책이 설득력을 높였다.

‘이슈텔링’은 정전협정 그 후 70년을 조망하며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평화협정의 실체와 종전선언 이후 한반도의 기대효과를 진단한 기획이 돋보였다.

【구성 및 내용】

북한의 양강도에서 군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탈북한 일가족 4명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억만금을 들여서라도 잡아서 본보기로 삼으라고 분노한바 있다. 국경지역에서 군 기강 해이가 문제된 것으로 심각한 군민관계 훼손으로 인한 일종의 사상검열 조치가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1호 방침은 법 보다 더 강력한 최고지도자의 지시사항이다. 국경경비대장 진술 내용을 보면 경제적으로 어렵지도 않고 믿을만한 가족이었는데 밀수를 통해 생계를 꾸려온 일가족이라 최근 국경 경계가 심해지며 힘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지역은 2년 여간 봉쇄되며 주민들의 일탈 및 탈북이 증가하고 있다. 작년 초부터 중국도 국경지역의 경계가 강화되며 탈북이 어려워졌는데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중국의 코로나19 경계가 조금 약해지면서 탈북이 증가되고 있다. 북한은 10월 19일 신형 미니 SLBM 발사 시험을 했고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미사일을 연달아 쏘고 있지만 상황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매체에서 미사일 발사 시험 보도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가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SLBM도 ‘미니’였다. 즉 북한이 판은 깨지 않으면서 북한의 대화 의지 가능성은 엿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의 정전협정문에 한국의 서명이 없어 북한은 그간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 왔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의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 위임했고 그 결과 1950년 7월 국군지휘권이 유엔군에 이양되었다. 즉 직접 서명하지 않았지만 위임에 따라 협정에 참여한 것이다. 따라서 평화협정은 전쟁을 끝내는 협정이다. 종전선언을 거쳐야만 평화협정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니다. 평화협정은 정치적 협정이지만 평화 성립 날짜, 영토와 경계선 등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내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걸림돌이 있다. 이에 평화협정을 위한 입구로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으로 핵개발, 미사일 개발을 하지 말고 평화와 신뢰 회복을 결의하는 평화협정의 전단계로 들어서는 것이다.

프로그램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방송일자	2021. 10. 24.	시청률	0.079

【총 평】

‘피맛힌 모월리의 진실 - 대한청소년 개척단 사건’은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 이후 수립된 군사정권이 거리의 부랑아와 고아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준다는 명분으로 강제노역을 시키고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국가라는 이름이 낳은 또 하나의 비극적 사건을 재조명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제고했다.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서산개척단 사건을 확인하고 진실을 규명했다. 국가는 강제노역과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국가의 공식사과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서산개척단’의 가장 큰 문제는 그분들이 개척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 폭력을 당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개척이 끝난 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성 및 내용】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1년부터 전국에서 군인과 경찰 주도로 강제 진행된 개척단 사업 또는 사회 명랑화 사업으로 국가의 폭력성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되돌아보게 한 사건이었다. 동아일보 1961년 11월 24일자 부랑아 고아를 위한 ‘사랑의 오개년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집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나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과 터전을 제공하고 결혼도 주선해준다고 선전했다. 이후 이에 대한 뉴스는 신문에 계속해서 실리며 ‘개선된 삶을 꾸려나가는 그들’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개척단 사업은 정부주도의 자활정착사업이었다. 보건사회부가 추진한 자활정착사업은 전국적으로 20군데가 넘었다. 거리의 부랑아와 고아 윤락녀 단속은 군경의 주도하에 강제적으로 행하여졌고,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1962년 9천명 단속을 시작해서 1964년에는 3만4천여명, 1965년에는 4만명이 넘었다. 서산개척단은 보건사회부가 주관하고 민간단체인 대한청소년개척단이 운영하였다. 당시 개척단은 좁은 천막생활을 하고 폐염전을 농토로 개척하는 노동을 했으며, 염전 위의 연병장에 기거하며 군대와 같은 생활이었다. 무차별적 구타와 가혹행위, 혹독한 노역과 사고, 부실한 식사배급으로 인한 영양실조로 사망하기도 했다. 그래도 힘든 노동을 참아가며 버텼던 것은 정부가 집과 땅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으나, 일구어 놓은 땅은 정부가 빼앗아 가서 매매를 해버렸다. 돈이 없는 그들은 그 땅을 사지도 못했다. 몇몇은 20년 상환제로 구입을 하거나, 자식들이 보태어서 땅을 매입하기도 했다. 특히 개척단 합동결혼식은 모르는 상대와의 강제결혼식이었다. 여성들에게 최악의 인권유린이었다. 인권유린과 강제노동, 폭력이 자행되고 있었지만 정부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아서 사망한 사람에 관한 통계도 없다.

국가는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 이후 대한청소년개척단을 조직하여 일부 개척단원들을 강제적으로 수용하여 노역하게 함으로써 중대한 인권을 침해한 점에 대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1. 10. 24.	시청률	0.005

【총 평】

‘콘텐츠가 미래(공연예술) 문화예술 가치를 만나다’편은 세계적으로 K-콘텐츠의 우수성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연극계 등 일선 예술계 현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크다는 문제 제기와 이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면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해법을 모색했다.

코로나 시대 예술계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대책 순으로 논점을 이끈 구성이 설득력을 높였고 연극들의 목소리를 통해 열악한 연극공간과 경제난 실태 등을 집중 제기한 구성이 흡인력을 이끌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K-콘텐츠의 향후 과제를 진단하고 이를 정책적 제언으로 조목조목 제시한 구성이 돋보였고, K-콘텐츠의 구체적 사례와 경제적 가치를 예시하며 문화콘텐츠 산업이 먹거리 개발에 주효하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성 및 내용】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공연계와 온라인 기반의 영화산업과 OTT산업의 호황을 조명하며 대면예술을 디지털뉴딜로 활성화할 방법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담아냈다. 현재 문화계는 대면으로 하는 연극과 콘서트는 반토막 이상 줄어들었고, 비대면으로 하는 온라인 기반의 영화산업과 OTT산업은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부익부빈익빈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접어들며 온라인 기반의 문화향유가 하나의 부류가 됐고, 대면예술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외된 대면예술을 디지털뉴딜로 활성화할 방법을 모색할 시점이다. 대면예술의 가치존속을 위해 연극배우들에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연극계가 그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현장감을 높일 수 있는 기술력을 정부차원에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뮤지컬 라라랜드, 공연을 그대로 영화로 옮긴 보헤미안랩소디가 인기를 누린 점을 모티브로 삼아 문화적 크로스오버를 누릴 수 있는 재원이나 기술적 기반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문화는 단순히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파급력을 미치는 문화콘텐츠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제조업에서 문화콘텐츠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K-콘텐츠의 힘은 배우, 연기하는 사람에게 있다.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스케일로 승부를 보기는 어렵다. 즉 자본력의 한계에도 K-콘텐츠가 가진 특색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 대장금의 경우처럼 우리만이 가진 독특한 콘텐츠에도 세계는 감동할 수가 있다. OTT로 사업수익을 올린 대기업에서 예술인을 위한 기금을 내놓는 방안은 상생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제언이었다. 한국적인 독특한 소재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점, 창의적인 콘텐츠의 재가공과 플랫폼 구축, 배우 역량 개발 환경 조성 등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겨졌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1. 10. 24.	시청률	0.022

【총 평】

‘탄소중립, 어떻게 되고 있나?’편에서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취지와 2030 NDC 40%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탄소중립의 목표와 정부의 계획을 제시했다. 시멘트와 철강 등 탄소 배출이 심각한 산업 현장을 소개하고 그들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들어보며 탄소중립의 긴 여정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또 선진국과 환경 단체의 입장을 들어보며 느슨하게 대처해야 할 상황이 아님을 일깨워주었다. 특히 친환경마스크 공장을 방문해 우리가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마스크조차 탄소마스크임을 자각시켜주었고 향후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었다. 온트리 앱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있는 가정을 소개하며,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실천하는 국민의 노력을 보여주었다.

【구성 및 내용】

지난 8월에 국회를 통과한 2050 탄소중립법은 에너지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국가적 목표로 정해졌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이상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갑작스러운 충격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차선택이 있을까? 산업계의 부정적인 시선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현재 2050탄소중립을 선언한 나라는 137개국이고 이중 14개국은 법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탄소중립이 새로운 규범이 되었다는 시대적 흐름은 우리의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올해 5월에 출범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정책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여러 연령층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탄소중립위원회의 당면과제는 약 30년 후인 2050년의 탄소중립을 위한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 배출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탄소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의 두 가지 안이 나왔다. 각 안의 과정과 방법은 다르지만 결론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이다.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중간점검 과정으로 2030 NDC 최종안도 공개했는데, 우리나라는 배출 정점 연도인 2018년도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으로 기준안보다 상향된 것이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세계적 국가로 도약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속도 조절 검토도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계는 2030년 NDC상향이 현실성이 부족한 목표이라서 달성 가능한 수단들을 조사해서 실제적인 수치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호소한다. 탄소배출을 줄이고 2030 NDC 목표를 달성하려면 획기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일 수도 있다. 2030 NDC 상향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과 반대로 오히려 이 목표가 ‘국제 흐름에 미달한 것’이라고 환경단체는 주장한다.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21. 10. 24.	시청률	0.009

【총 평】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마을의 '역할 끝난 상여 보호각...문화재 구역 해제 추진'과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비좁은 인도 위 버스정류장...수원시, 해법 모색'은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점은 확실히 파악됐지만 완전하게 해결 된 상황은 아니어서 아쉬움이 남았다.

충남 태안군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상여는 수장고로 옮겨두었는데, 상여 보호각은 놓지 한 가운데 놓여 있어 주민들이 상여없이 남아있는 상여 보호각을 철거해달라는 행정 절차를 신청했다.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못골시장 앞 버스정류장은 좁은 인도를 사용하고 있어서 다양한 불편함과 사고의 위험이 있는 민원으로 구체적 해결 방법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수원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성 및 내용】

■ 역할 끝난 상여 보호각...문화재 구역 해제 추진

장례문화가 변화하면서 요즈음은 보기 힘들어진 상여를 두고 갈등이 일어났다. 상여는 시신을 실어 장지까지 운송하는 가마같이 생긴 것인데, 성인남성 십여명이 운반한다. 충남 태안군 승언리마을에 있는 충남문화재자료 제 315호인 상여는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것으로, 고종의 첫째 아들인 완화군 이선의 장례에 사용되었다. 현재 상여 보호각은 그대로 있지만 상여는 보존처리를 위해 태안 수장고로 옮겨져 있다. 즉,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상여는 없고 빈 건물인 상여 보호각만 남겨져 있는 상태인 것이다. 충남 태안군은 상여는 보존처리해 태안 동학혁명농민관에 보관하고, 일반인 관람을 위해 특별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상여 보호각은 상여를 보호하기 위해 1993년 설치된 건축물로 1996년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어 문화재 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 비좁은 인도 위 버스정류장...수원시, 해법 모색

'비좁은 인도 위 버스정류장, 수원시 해법 모색'은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못골전통시장' 앞 버스정류장의 혼잡한 모습을 전달했다. 버스가 무려 28대가 정차하는 교통 혼잡구역이지만 전통시장 앞이다 보니 인도가 불과 1미터가 되지 않아 많은 혼잡과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다.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이곳을 지나가는 시민들이 혼잡을 겪고 자칫 진입하는 버스와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버스 정류장 앞 대기 좌석마저 적어서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었다.

수원시 팔달구청은 불법 적치물과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하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상황을 전달했으며, 인도를 확장하는 방법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버스정류장을 옮기는 방안도 검토했는데, 현재는 더 큰 불편이 우려돼 보류된 상황이다. 다만 시민들의 편의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검토 중이다.